

메시지 4

강화의 단계에서
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

성경: 계 1:4-5, 3:1, 4:5, 5:6

- I. 요한계시록은 행정(4:2, 5, 5:6)과 강화(1:4, 3:1, 4:5, 5:6)와 완결(21:1-2, 22:1-2, 17)의 책이다.
- II.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‘다른’ 그리스도이다. 1장 13절부터 18절
까지에서 그분은 ‘맹렬한’ 그리스도이다.
- III. 누룩(마 13:33)과 가르침의 바람(엡 4:14)과 첫째기는 사랑을 버림(계 2:4-5)으로 야기된 교회의 타락 때
문에,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일곱 배로 강화되시어 일곱 영, 곧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
영이 되셨다—고전 15:45하, 계 1:4, 3:1, 4:5, 5:6.
- A. ‘일곱 영’이라는 칭호는 그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—계 1:4.
- B. 일곱 영은 등잔대의 일곱 등잔으로 예표되신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—출 25:31, 37, 스펀 4:2,
10, 3:9.
- C.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타락했고 시대는 어두웠다.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
움직임과 일을 위해서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.
- D.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일곱 배로 강화하시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교
회의 타락에 반응하셨다—계 4:5, 5:6.
- E. 일곱은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에서 완성의 숫자이다—계 5:1, 6:1, 8:1-2, 16:1.
- F. 일곱이라는 숫자는 또한 강화를 상징한다—사 30:26, 단 3:19.
1. 생명 주시는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셨으므로, 그 영의 모든 요소도 우리의 체험을 위해 일곱
배로 강화되었다—롬 8:2, 히 10:29.
2. 오늘날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는 그 영은 일곱 배로 강
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—롬 5:10, 계 3:1, 5:6.
- IV.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신성한 삼일성,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예
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.
- A. 1장 4절과 5절에 계시된 삼일성은 경륜적인 삼일성이다.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삼일성의 행정
과 움직임과 일을 보기 때문이다—계 4:5, 5:6.
- B. 일곱 영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한 영(엡 4:4)이다.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
서 일곱 영께서 신격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이다.
- C. 본질과 존재에서 그 영은 하나이지만, 기능과 일에서는 일곱이시다—엡 4:4, 계 1:4.
- D. 1장 4절과 5절에서 그 영은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 분, 곧 중심이 되신다.
1.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의 강화된 기능의 중요성을 계시한다.
2. 이것은 또한 교회의 타락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 영이 결정적으로 필요하
다는 것을 상징한다—계 2:4, 14, 20, 3:1, 15-17.
- V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갖고 계신다—계 3:1상.
- A. 일곱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어 가는 교회인 사데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다. 죽어 가는
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을 통해 살리시는 것이 필요하다—계 3:1하.
- B.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일곱 영께서 일곱 별, 곧 인도하는 이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. 교회
안에서 인도하는 별이 되려면 우리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필요하다.

VI.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이다—계 4:5.

- A.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일곱 등불은 일곱 영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움직임에 관련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—계 1:4.
 - 1. 하나님의 보좌 앞의 일곱 등불은 비추고 살피고 폭로하며 심판하고 태우기 위한 것이다.
 - 2. 하나님은 비추시고 살피시고 폭로하시며 심판하시고 태우심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신다—벧전 4:12, 17.
 - 3.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들은 체련할 것이다—벧전 1:7.
- B. 결국 우리의 체험에서 불타는 등불은 생수의 흐름이 되고, 일곱 등불은 하나의 강이 된다—단 7:9-10, 계 4:5, 22:1.
 - 1.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타는 일곱 등불이 있고, 2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있다.
 - 2.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, 우리가 일곱 등불의 태움을 받아들인 후에 일곱 영은 생수의 한 흐름이 되신다.
 - 3. 그 영은 우리를 태우신 후에 반드시 흐르신다. 그분의 흐름은 항상 그분의 태움에 뒤따른다.

VII.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린양의 일곱 눈이다—계 5:6.

- A.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경륜적인 삼일성에서 신격의 두 번째 분은 일곱 영이신데 신성한 삼일성의 세 번째 분의 일곱 눈이 되신다—계 1:4-5.
- B. 하나님의 행정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눈이 되시는 일곱 영이 필요하시다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길은 그분의 눈이신 일곱 영에 의해서이다—계 5:1-7.
- C.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다.
- D. 어린양의 일곱 눈은 감찰하고 살피며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—계 5:6.
 - 1. 구속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이 있는데, 이 일곱 눈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완결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—계 21:2.
 - 2. 어린양의 일곱 눈이신 일곱 영은 어린양의 온 존재를 우리 속으로 주입하시어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다—요일 3:1.
 - 3.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—슥 3:9, 롬 12:2, 8:29, 고후 3:18.